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0년 4월)

\* 서면 제출일 : 2020. 4. 16.(목)

\* 총원 12명 중 11명 참여

\* 참여 위원 : 김요수, 김태진, 김형순, 류한호, 박미자, 이묘숙, 이철우, 임철원,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11명)

\*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2020년 4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함

### □ 김요수 위원

-3월 26일 뉴스는 12월에 했던 보도를 다시 점검해보는 꼭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성매매, 보도에 대한 자기 검증과 보도에 대한 사회 척도를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라는 느낌, 보도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함. 그 뉴스 뒤로 관계된 뉴스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단 발족식’은 뉴스를 꼼꼼하게 만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MBC가 든든했다.

-공공기관 공사대금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 뉴스, 언론이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야 제 자리에 선 느낌이 들고, 뉴스가 낯선 곳에 서야 그 값어치가 크다는 느낌이 드는 꼭지. 갑의 상징인 공공기관, 돈의 상징인 공사대금, 양반 상민 천민의 계층은 사라졌다지만 그런 계층보다 천대를 받는 3세계 노동자, 그런 노동자의 돈을 떼먹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펍권스튜디오는 양림동 주민은 물론 양림동을 찾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생방송 참여를 높였다. 양림동 역사의 스토리 발굴에서 앞으로 쓸여갈 스토리가 더 풍부해질 것이라 기대가 생긴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개발되어 양림동의 값어치가 더욱 커질 것이다. 펍권스튜디오의 탄생은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들 것이다.

-<핑크피쉬 대담한 가게>(4월 4일)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느낌, 잘 짜진 소설을 읽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재밌어서 빠져들었다.

변영주(영화감독), 황선도(물고기 박사), 박찬일(셰프), 박혜진(진행, 아나

운서), 다니엘 린데만(독일인 방송인), 황풍년(전라도닷컴 편집장), 이름 짜(유명)하면서 전문가인 사람들이 모여 수다를 떠다. 그 사이사이에, 흥어 요리과정을 보여준다. 요리과정은 익숙하지만 독특하고 세련되게 구성되었다. 때로는 다가가 크게 잡고, 때로는 느린 화면으로 눈초리(시선)를 잡아끈다.

하루만 문을 여는 서울의 낯은 한옥, 장소도 맛(구미)만큼 관심을 당긴다. 젊은 흥어 시식단을 모집하여 음식을 대접한다. 시청자이면서 참여자인 그들의 다양한 반응은 ‘변화’를 끌어내고, 관심을 끌어내기에 매우 적절했다.

흥어를 핑크피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흥어찜, 흥어애국, 흥어탕과 같이 ‘쓰던 말’에서 스테이크, 리조토 같은 말을 곁들이니 흥어 맛도 다르게 느껴지고, 대중화된 느낌이 든다. 흥어가 불썃한(특별한) 생선이 아니라 다른 물고기처럼 잡고, 경매를 하는 모습도 친숙함을 더했다.

흥어가 ‘전라도 혐오’를 대표하고, ‘혐오는 두려운 짜증’이라든가, ‘혐오는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심정에서 나온다’는 규정이 관심을 끈다. 독일인 린데만이 독일의 혐오와 반성, 통일 30년을 곁들여 보기를 들어준 일도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표현하지 못하는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혐오는 포퓰리즘이다’와 같은 말을 직접 말해 주니 귀에 쏙 들어온다.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을까?’와 같은 자막은 말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강렬하게 박히는 구성의 큰 틀이다. 연관 검색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분석과 ‘민주화가 흥어를 대중화시켰다’는 분석도 흥어이야기의 새로운 접근이어서 신선했다.

물고기 박사의 흥어의 생애도 흥미를 더했고, ‘맛있는 음식은 세상을 바꾼다’라든가, 전라도 음식의 3가지 ‘흥어, 꼬막, 낙지’ 이야기가 쏠쏠한 재미를 줬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괜히 지식을 잘 먹은 느낌을 준다.

## □ 김태진 위원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의 총선으로 인해 여느 선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선거 이슈에 맞추어 발 빠른 보도들이 이어져서 선거 준비기간 내내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선자가 발표되자마자 당선자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포부를 담아낸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개표방송에서 오해가 될만한 발언이 있긴 했지만 발 빠르게 사과함으로써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광주와 중앙 MBC 모두 총선 관련 보도에 타사보다 열심히 뛰어다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월10일에 방송된 5.18 40주년 특별 연중기획 '내 인생의 오일팔'에 일 본인 예술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가 나왔습니다. 내용과 스토리로 인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좋은 콘텐츠라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의 오일팔' 이야기들을 모아 다큐멘터리나 단편영화 식으로 제작이 되어도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리포터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다 보니 입 모양이 보이지 않아 청각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의사전달이 평소보다 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자막이 좀 더 들어가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 □ 김형순 위원

코로나19로 두 달째 시청자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지혜롭게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시청자위원분들 중에 임철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한전과 함께 에너지 밸리 입주 기업들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 NGO 및 사회단체인 YMCA 이사장에 취임하신 류한호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활동을 기대합니다.

4월 14일 아침 뉴스 시간에 박미자 위원님이 이슈인투데이에 출연하여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분양소를 마련하고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대표로 나와 대담하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역시 시청자위원 활동하신 분이라 막힘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 광주 소식뿐만 아니라 전남의 소식, 타 지방의 소식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광주MBC 뉴스가 지역민들에게 광주, 전남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가는 데 앞장서고 있어 참 보기 좋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다음 달에는 꼭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 □ 류한호 위원

-선거보도에서 코로나19 보도에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선거보도의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후보자 초청 TV토론이나 <김낙곤의 시사본색> 등을 통해 보완되긴 했지만, 다른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보도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 관련 보도도 그 양이 매우 적었습니다. 후보들이 정책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탓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열기를 띠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을 잘 따져서, 그 정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예산조달 방안 등을 시청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줘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미디어들과의 경쟁 심화 현상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방송사에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하여 좀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4월 16일 광주 양림동에 문을 연 광주MBC 양림펍권스튜디오에 가는 기대가 큼니다. 양림펍권스튜디오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방송을 실현하는 상징성 있는 사례입니다.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기존의 방송에 비해 시청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시청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양림동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라디오 생방송에 필요한 송수신 장비를 갖추고, 매일 <정오의 희망곡>과 <놀라운 세시> 등 라디오 프로그램을 여기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합니다. 하는 일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매일 이처럼 긴 시간을 라디오 생방송을 한다하니 PD와 진행자는 신경 쓸 일이 많아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재미와 보람은 있을 것입니다. 컬투쇼나 '보는 라디오'로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콘텐츠를 축적하고 공유해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이 일찍 만들어지길 바랐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들어지니 다행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활동공간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 □ 박미자 위원

-아침 출근시간에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역시나 3월 말경부터 415총선 관련 후보들과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특히 목포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까지 연결하여 공정의 MBC와 어

울렸다. 거리에서 만나는 후보들보다 직접 인터뷰를 통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총선 이후 몇 명이지만 당선자와의 인터뷰도 있어서 꼼꼼한 기획이 돋보였다.

한가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 아침 총선 관련 이야기만 집중하고 정작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게 조금은 아쉬웠다. 끝날 때 진행자가 한마디라도 언급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1, 2부와 3부 사이에 나오는 노래 선곡은 너무 감동이다.

-4.15 국회의원 총선 개표방송은 단연 MBC였다. 중앙방송의 화려한 장비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분들의 노련한 진행 솜씨 그리고 처음 보는 전구들의 색깔로 시각적 효과를 높였으며, 중간중간 단순한 숫자들의 표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영화, 인물, 만화 등)으로 경쟁하는 후보들의 표 차이를 보여줘서 지루하지도 않고 집중하고 보게 되었다.

또한 광주MBC 개표방송 또한 중앙에 밀리지 않게 스튜디오에서 진행이었지만, 개표되는 속도에 놀랐으며 지역별 후보들의 득표수를 보기 쉽게 표시해 주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 익숙해 있는 현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춰 재미와 스토리가 있었고 신속 정확한 개표방송이었다.

다음날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가 옛날 방식의 지역별 파랑과 핑크색깔 표시보다 벌집모양의 색깔 표시가 훨씬 지역 구도에 있어 공정해 보였고 지역 안배에 대한 오해가 없어 보여 더 신뢰가 갔다.

-먼저 <오매 전라도> 제작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다양한 곳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물색해서 적재적소에 정보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 잘 보고 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6주기 관련 특집기획을 준비해 주셔서 세밀한 기획에 놀랐다.

광주의 진행 소식도 잘 파악하고 미리 사전 촬영을 통해 세월호 추모전시에 대한 의도를 잘 살려주어 너무 감사했다. <오매 전라도>는 시민들의 관심과 내 이웃의 이야기들의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팽목항도 잊지 않고 관심 가져 주어서 벽화작업팀을 초대해 인터뷰를 통해 팽목의 역할을 공유할 기회를 준 것도 너무 감동이었다.

특히 진행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과 진행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필요한 질문과 작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꼬집어내어 주셔서 역시 노련한 진행자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시청자들은 그리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새

로운 이야기 변화되는 정보제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에 더욱 마음이 가고 귀 기울이게 된다. <오매 전라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시간 편안하게 MBC와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 □ 이묘숙 위원

-코로나19 관련 안내 화면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팝업창으로 고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응원과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안내하거나 다시 보기로 유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청취 중 일기예보는 <황동현의 시선집중>의 경우 인터뷰 중간에 도로 상황과 같이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전 8시 뉴스에서 현재 기온 안내가 서로 틀릴 때가 있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더러 발생하곤 합니다. 뉴스원고에 현재시간은 앞서 타임의 시간을 잘 점검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방송 일정 메모를 놓쳐서 정확한 일정을 밝힐 수 없으나 4월초 김두식 아나운서 골라온 뉴스 녹음분에서 편집 실수가 있었으며, 방송 중에 인터뷰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송출되었다가 다시 본 인터뷰-스튜디오 상황으로 연결되는 사고가 동일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엔지니어와 제작진의 집중이 좀 더 요구됩니다.

#### □ 이철우 위원

-이번 달은 코로나19와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과 관련된 내용, 즉 보도의 깊이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고 장기간의 보도로 인해 최근 들어 차츰 뉴스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 저지와 예방법에 대한 계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악화된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약자, 자영업자들의 상황에 대해 단순 인터뷰를 근거로 추상적인 수준에서 어렵다고만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더 숫자적인 예시를 통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가슴과 머리로 동시에 이해가 되는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근거로 광주시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떤지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광주시나 전남의 특정한 곳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시도민들의 생활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는 것도 보도의 깊이를 올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는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보도 시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단순히 후보자가 인터뷰 때 얘기하는 구호성의 공약보다는 기자들이 직접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찾아서 후보자들의 공약 차이를 알려주는 맞춤형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 분위기가 식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접근 방법은 후보자를 비교하는데 매우 유효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당선자가 향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공약을 지키는지 시민들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사안을 예로 들었지만 보도에 있어서 단순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도보다는 좀 더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한 보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임철원 위원

-유명 셰프를 포함한 셀럽들이 참여하여 흥어의 전국화를 모토로 다양한 흥어 요리와 더불어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스토리들이 이어졌다. 흥어가 전라도의 상징이자 전라도의 대표적인 잔칫상의 음식에서 벗어나 중앙무대로 진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흥미롭게 소개되었다. 전라도의 소울 푸드이다 보니 전라도에 대한 혐오적 표현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했고 진보의 상징인 전라도와 연결하여 폄하되기도 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문제일 뿐 물고기는 죄가 없다’는 출연자의 언급이 가슴에 와닿았다. 흥어는 겨울에는 서남해안에서 월동하고 여름에는 대청도에서 서식하듯이 흥어는 경계가 없이 바다를 누빈다.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음식으로 진화되기를 바라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흥어삼합, 흥어회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있

었다. 맛있는 음식이 세상을 바꾸듯 흥어가 통합과 연대의 중심에 자리 잡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흥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꺼번에 통찰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 □ 조속경 위원

-2021년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할 듯한데, 특히 광주MBC가 연초에 기획했던 10대 방향성 혹은 연중기획 시리즈를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 신입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개학 등과 관련한 방향성이 지역 교육청들과 의견을 달리 하며 혼선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교육감의 고3 학생 대응 방안 등은 민감한 이슈인듯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교육계 대응 문제들을 보도국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시청자들이 공감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림동 펍스튜디오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를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최선희 부위원장

-<김낙곤의 시사본색>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 민생경제 방역대책’ 편 “1997 IMF 때의 민생경제에 비해도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는 지역경제계의 소상공인 입장을 전달하면서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의 구체책을 간구해 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적인 3단계의 안정 대책도 효과적이겠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의 안정대책’은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겠다.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의 전달 창구의 역할은 특특히 해낸 셈이다. 모처럼 <김낙곤의 시사본색>이 살아갈 만한 대책을 발표하는 창구의 발 빠른 전달은 갈증에 목말라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의 본체를 보여주는 생생한 시사의 본색이었다.

-정치세평 21대 총선 편에서는 정치신인과 중진급 의원들의 대결과 또 하나의 측면은 집권당과 중소정당의 대결 구도로 양날의 칼의 대결을 사전 평



가해 가는 두 패널은 비교적 적중된 의견들을 피력해 내었다. 일단 출마자들의 접수가 끝난 시점이지만, 사전녹화여서 그런지 충분한 데이터나 보드 등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을 가질 텐데 29일 아침 방영으로는 뜨끈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의 검토는 예상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었다.

-여러 단어의 키워드를 짧은 3분 안에 친일파의 과거사부터 거쳐서 노무현 정부의 '사스 모범 예방국'과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책 비교도 대단했다. 익살스러운 음성 역시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관찰과 경청을 통해 총선에도 우왕좌왕이나 횡설수설하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도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일꾼을 뽑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해낸 결과가 되었다 싶습니다.

#### □ 최영태 위원장

-<광주형 일자리 보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4월 2일 노사 상생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협약 파기를 선언했고, 4월 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주주들은 4월 29일까지 노동계의 복귀가 없으면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중대 결정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양대 축인 주주와 노동계가 정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 대주주인 광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다.

마침 총선이 끝나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광주시 및 노동계와 연속 간담회를 하고 중재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의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노동계, 광주시 등과 대화를 하면서 중재역이 가능한지 탐색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는 크게 다음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첫째는 노사 상생의 가능성 유무고, 둘째는 노사 상생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성을 지니고 있느냐 여부이다. 노동계는 불참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든다. 하나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노사 상생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광주시와 현대차가 노동계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지 진정으로 노사 상생의 사업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회의론이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작으니 시민들의 질타를 받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접

도록 하는 게 시민을 위해 오히려 나올 것 같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보면 이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 현대차가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광주시의 역할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 일반 시민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지역사회의 주 관심사로 등장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MBC가 심층 토론회, 심층 보도 등을 더 많이 하여 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성격과 전망, 노동계와 대주주들 사이의 견해차의 핵심적 내용 등에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노동계가 불참해도 일반 사업체로서 성공 가능한지, 노동계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현대차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등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다.